

구도심 '동충동' 기록으로 담아

남원시, 구도심기록화 조사집2 '동충동·남원역' 발간

삶과 공간의 기록으로 담아낸 동충동과 남원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남원 구도심의 인문·사회적 의미를 조사하고 기록한 남원구도심기록화 조사집이 지난 「금동」편에 이어 두 번째 「동충동·남원역」이 발간되었다.



남원구도심기록화 조사집이 「동충동·남원역」이 발간되었다.

B4 크기에 총 103쪽으로 이뤄진 동충동은 △남원읍성, 물을 수 없는 기억 △75년 청춘의 꿈, 남원역 △동충동 기차가 떠난 후 △우리가 타고 있는 것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이야기에서는 남원역의 변화와 그 궤를 함께한 동충동의 이야기를 다뤘고 주민들의 기억을 토대로 삶과 도시경관의 변화를 기록했다.

주요내용으로 1장 남원읍성, 물을 수 없는 기억에서는 용성관과 단인의 의충의 옛 모습과 이야기를 남원읍성에 얽힌 아픈 기억과 함께 구성하였다.

2장 75년 청춘의 꿈, 남원역에서는 밥 짓던 연기가 끊이지 않았던 철도

그러졌다.

남원구도심기록화 작업은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따라 사라지거나 원형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공간과 삶을 기록하기 위해 남원시가 기획했다. 2017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제1차 구도심기록화 「금동」이 진행되었고 2차 기록화 「동충동」은 금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심층조사(구술 등)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앞으로 향후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따라 사라지거나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공간과 삶(일상)을 기록하여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 콘텐츠와 기록화 조사집으로 구성하여 남원시민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이야기를 알리고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다움은 도서관·기록관·미술관의 기능을 합친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예정) 금동 고생지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남원 광학루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88회 춘향제에서는 광학루원 정문 앞 방자프린지무대에 풍물공연을 마련했다.

18일, 21일, 22일 3일간 지역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남원 광학루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88회 춘향제에서는 광학루원 정문 앞 방자프린지무대에 3가지 특별한 풍물공연을 마련했다. 예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지키며 우리 문화의 긍지와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풍물공연이다.

18일 오후 2시에는 전주기잡놀이 보존회가 펼치는 기잡놀이 3마당이 전개된다. 기잡놀이는 전주 지역에서 전해 오는, 지역사회의 단결을 고무 민속놀이로, 마을을 상징하는 커다란 용깃발을 농악과 함께 장쾌하게 펼치는 놀이이다. 백중날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부르는 노동요인 '만두레 소리'를 시작으로 상대 마을의 깃발을 넘어뜨리는 싸움인 용기놀이 등 다양한 마당이 펼쳐진다.

21일 오후 4시에는 남원농악보존회의 좌도농악편의 우수한 명인들의 흥 넘치는 남원 농악이 펼쳐진다.

연희자의 자율적인 연주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부들상모, 채상고놀이 등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무용동작과 예능이 어우러진 소고놀이로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연희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볼 수 있다.

22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 시흥 지역의 역사가 담겨있는 월미농악이 펼쳐진다. 시흥월미농악보존회가 펼치는 월미농악은 조선시대 궁중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시흥지방의 풍물로, 신명나는 장단과 함께 현란하면서도 절도있는 춤사위로 경기지방을 특성을 재현해 낸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인문독서 아카데미 첫 강좌

순창군은 '논어와 맹자에 보이는 왕도와 패도'라는 철학 수업으로 인문독서 아카데미 문을 활짝 연다.

군은 군립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17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북대 황갑연 교수가 '논어와 맹자에 보이는 왕도와 패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동아시아 문화를 지배해 온 유가철학의 왕도정치와 패도정치에 허구와 실상을 정확하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 왕도와 패도의 이념이 현대의 정치에 적용 가능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강의는 인문독서아카데미의 첫 강좌로 군은 올해 철학에서 5강좌, 한국사 분야 5강좌, 근현대사에서 5강좌 등 총 15강좌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특히 올해는 그동안 단기 강의 위주의 단편적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더 깊게 인문의 본질을 파헤쳐 보는 심화 과정으로 기획했다.

군 관계자는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인문학의 간간을 이루는 철학과 역사에서 저명한 교수님들과 대화하면서 인문학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인문학의 정수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립도서관은 '2018년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면서 인문학 부흥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민소통실 농촌 일손 돕기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지난 15일 산내면 팔랑마을에서 불철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산내면 팔랑마을은 고사리 채배 면적이 넓어 고사리 채취 작업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나, 극심한 고령화로 일손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정성을 다해 작업을 도왔다.

또한 초여름을 방비케한 무더위 속 간식 및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해 농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했고, 작업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일손지원을 받은 농가주 정씨는 "일손이 부족해 고사리 채취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남원시 시민소통실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광채 시민소통실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작지만 힘을 보탬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재난훈련 강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임실군이 주민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위기관리 능력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군은 15일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임실군민체육관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생명을 최우선 보호하고, 재난대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군민 개개인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대응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실행기반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과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 반을 구성,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임실군 주관으로 임실경찰서, 임실119안전센터, 제7733부대 2대대, 한국수자원공사 삼진발전관리단, 한전 임실지사, KT 임실지사, (주)일진제약,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임실군의용소방대, 임실군 적십자사, 임실군 여성민방위대 등 기관·단체가 참여해 이뤄졌다.

최근 우리나라 화재 발생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에는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으며, 올해 초인 1월에는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사 등을 포함해 46명이 사망하는 141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인명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등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국민생명을 최우선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 기간 실시되는 전국적인 지진대피훈련과 대규모 화재 대비 현장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개소식 성황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임실다운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6.13 지방선거 필승 다짐과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전북도당 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한완수 도의원 후보, 양주영, 황인권, 신대용, 장종민, 박기용,

이명로, 이성재 군후보 등 많은 정치인들과 군민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전상두 후보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듯이 전상두는 임실다운 임실을 만들겠다"며 임실군의 민주당 후보인 것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임실군이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계승활동 교육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우리음식연구회, 농업인, 일반인 등 6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반, 전통장류 활용 음식반,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 취득반 등 총 3개 과정에 45회의 계승활동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식문화 리더 양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및 향토음식 발굴·계승 활동을 하여 농·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녹색식생활 실천을 이뤄내는 게 그 목적이었다.

특히, 실생활에 활용이 쉽고 향토음식자원을 상품화, 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 이론, 시연, 실습 및 현장견학 등을 병행 단계적

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총 교육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에 방문접수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이메일(email) 접수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교육을 통해 향토음식 및 농촌자원의 문화적 가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식문화 리더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전통식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생활지원팀 ☎ 6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